



SARANG

시론 02

우리들의 도시 그리고 건축사의 삶

종합 03

사랑에서 _ 언제 개업을 해야 하나요?
건축사 만평

전북 지역 뉴스 04-05

전북건축사회, 2022 한마음 걷기대회 개최
전라북도건축사회, 주거취약계층 이웃돕기성금
전주시 완산구, 글로벌 관광지 도약을 위한 오목대 환경 개선사업 추진

광주 지역 뉴스 06-07

'호남 최대 창업 단지' 광주역 창업벨트 조성 속도
광주광역시, 비엔날레전시관 건립 속도 낸다
광주광역시,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자문 실시

전남 지역 뉴스 08-09

전라남도건축사회 임원워크숍 개최
2022 찾아가는 공공건축 교육 개최
전라남도, 지적재조사 업무 역량 강화

제26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10-11

주거(통합) 부문 최우수상 '자산 돌집'
리모델링 부문 최우수상 '전일빌딩245'

독자광장 12

책 소개 _ 마치우시 왕 1세
한 편의 시 _ 굴뚝의 속삭임
한 장의 사진 _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돔하우스

건축문화 사랑

광주·전남·전북 건축사회 신문
News 2022.12.157호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전라남도건축사회
전라북도건축사회



발행인: 정인채, 한형민, 박진만
창간일: 2009년 11월 10일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건축문화사랑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코드로 접속하신 후, 상단 '건축문화사랑'을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월별 PDF파일을 다운받으시면
구독 가능합니다.

우리들의 도시 그리고 건축사의 삶



조창호 논설위원

(주)이상 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사
moak21@hanmail.net

- [학위]
- 1999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대학원 박사 수료 건축계획 및 의장
 - 1989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 1982 이리고등학교 졸업
- [주요활동]
- 전주시의회 정책자문위원
 - 전주시 공공디자인 심의 위원
 - 전주시 도시재생 자문위원
 - 전주시 건축위원회 위원
 - 전라북도 그린리모델링 총괄기획가
 - 전라북도 공공건축가
 - 한국건축가협회 전북건축가회장
- [주요작품]
- 한스타일 진흥원
 - 전주시 자원봉사 센터
 - 부안군청사
 - 조남철 국제바둑기념관
 - 전주고등학교
 - 무주군민체육센터
 - 용흥초등학교
- [수상경력]
- 교육부장관(2000)
 - 전주시 예술상(2000)
 - 전라북도 건축문화대상(2001)

인간이 만든 가장 거대한 문화의 산물 - 도시, 도시는 인류의 발전 속도에 따라 끝없이 진화하고 있고, 그 시스템 속에서 사람들은 끝없이 크고 작은 건축물을 지어내며 복잡한 도시 네트워크를 구축해가고 있다. 도시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인자는 건축이다. 그것은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 상징성과 모든 건축물은 물리적 형태를 통해 사회적 특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도시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자기의 영역을 점유하고, 그 점유된 공간을 가장 배타적으로 조성한다. 보이지도 않는 선을 땅 위에 그어대고 거래를 하며, 그 영역 속에서 자기만의 또 하나의 도시를 결정지으려고 하는 것이다. 도시는 이 모든 것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새롭게 나타나는 전체이다. 따라서 전체의 관점에서 부분을 보지 않으면 안 되며, 새롭게 나타날 전체를 전제로 부분을 생산하고 조절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도시에 대한 미래의 청사진에 적절하게 계획되어 있는지를 검증해야 할 시점에 와있고, 그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한번 따져봐야 할 일이다.

요즈음의 우리의 도시는 재개발, 재건축, 혁신도시 등의 대형프로젝트의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과연 이러한 일련의 개발계획들이 지극히 수학적 접근에만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스럽다. 도시는 권력을 쥔 특정인의 연습장이 아니며, 집단화된 목소리의 전용 노래방이 아니다. 도시는 1차 방정식을 푸는 해법의 툴로서는 정의될 수 없으며, 건축물이 핵심인자인 도시는 그 자체가 언어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직하는 주체그룹이 갖고 있는 사고체계와 사회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철저히 이해하고 있는 시스템만이 도시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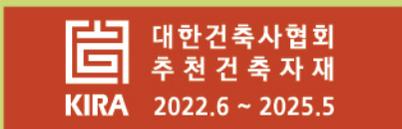
필자는 우리들의 도시를 생각할 때마다 루이스칸의 간명한 말속에 우리가 전혀 모르거나 관심이 적은 부분에 대한 도시의 목적이 있고, 현대도시의 존재방식을 새롭게 해석해준다고 믿는다. "도시란 그 길을 걷고 있는 한 소년이 언젠가 이

곳에서 무엇이 되고 싶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장소이어야 한다. (A city should be a place where a little boy walking through it's streets can sense what someday would like to be)" 이 주장은 도시가 집단의 분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개인과의 관계에서 논의되고 정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으며, 한 소년이 자라 그곳에서 앞으로 전개될 각종의 자극과 상상력과 잠재력으로 키우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작은 말속에 잠재해 있는 도시적 상상력을 통해 우리의 도시를 바라보고, 우리의 공간을 생각해 볼 때이다. 도시는 단순한 해법으로 풀리지 않는 이성과 감성을 지닌 복잡한 사고체계를 지닌 또 하나의 유기체이기 때문이다.

작금,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집단화된 이기적 단순성, 섬세하지 못한 맹목적 성실성, 창의적이지 못한 민주적 지배 구조 등의 세련되지 못한 도구로 우리의 도시를 파괴하고 있지 않은지를 깊이 생각해볼 때이다. 그 도시 속에서 공간을 조직하고 그 공간 구성원의 삶의 질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주는 우리들 건축사는 건축 앞에 어떤 태도이어야 하는가를 끝없이 자문하고 또 고민해야 할 것이다. 타인의 공간을 위해 지웠다 그리기를 반복하는 그 손끝의 고단함이 우리의 도시를 결정짓는다는 것, 그리고 그 소년의 꿈까지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 중에서 건축사는 역사, 인문학, 순수 예술 분야를 통시(洞視)적 사고로 이해하는 매우 특별한 존재이다. 떨어지는 빗방울을 미분하고, 바다로 사라지는 저녁 노을을 마냥 감성적으로만 즐기지 못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고단함을 감수해야 하는 자폐적 성향이 있지만, 그 사고과정이 곧 건축임을 누군가 알아채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너무도 명확하다. 제아무리 크고 거대한 건축도 오래된 나무 한 그루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무려 30년이 넘게 걸렸다. 이 시각에도 머리를 쥐어짜고 있을 우리 건축사님들께 잠깐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가슴을 쪽 펴시라는 말씀 전하고 싶다.

심재 준불연 EPS 단열재




심재 준불연 EPS 단열재

DK보드-X

DK보드-X는 10여년에 걸친 준불연 EPS 개발 경험을 통해 차별화된 기술력과 노하우를 확보한 |주디케이보드가 심재시험방식으로 개정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4호(2022.2.11)에 맞춰 개발한 심재 준불연 단열재입니다.

열전도율 0.039W/mk 나등급

심재 준불연 DK보드  [검색](#)

DK |주대 광 판 널 |주디케이보드 고객센터 1855-2240

사랑에서 _ 아흔여섯 번째

언제 개업을 해야 하나요?

1990년대부터 UIA(세계건축사연맹)는 국제적으로 건축사의 자격의 질, 건축사시험과 자격 중의 상호인증을 위해서 건축교육의 체계와 전문성을 확립하고자 5년제 교육과정과 실무수련을 절충하였다.

그래서 2000년부터 5년제 교육과정의 대학이 설립되었다. 건축사시험제도가 변화되었던 시기도 이때부터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물론 과도기적인 시기였겠지만 당시에는 건축기사1급이나 건축사예비시험 취득 후 건축사사무소에서 실무를 5년을 하고 그리고 나서 건축사시험을 응시하였다. 그 이후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이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가협회의 주축으로 현 국토교통부와 교육부의 참여로 시작하여 2005년 설립인가를 2012년에는 교육부로 학문 분야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후부터는 KAAB(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에서 인증받은 건축학과 5년제를 졸업하고 3년의 실무경력(미인증학교는 4년)을 쌓고 건축사시험을 보게 되어 있다.

그리고 보니 이제는 건축기사를 취득하거나 건축사예비시험을 합격하고 실무수련을 하는 시험제도는 없어졌다. 법은 폐지되었으나 아직은 2026년까지는 유예기간이 있지만 말이다.

현 시험의 추이나 상황을 보면 사람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실무수련 3년 이후 2년여 정도 준비하면 합격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그 건축사가 바로 개업을 할 수 있을까? 간혹 후배 건축사들이 언제 개업해야 하나고 묻는다면 명확하게 답을 못 했었다.

주5일제가 소규모 사업장까지 시행되었던 2011년 이전까지는 주 6일을 일하고 일요일도 쉬었던 적이 많이 없었던 그야말로 프로젝트 하나하나를 사람이 아닌 업무시간과 비례해서 일을 처리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보면 1년 365일 중 주 6일(8시간×6일=48시간)의 5년의 실무기간(48시간×52주×5년)을 생각하면 약 1만 3천여 시간을 투자하였고 대부분은 자격취득 후 2년여 정도 더 실무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럴 경우 17,472시간이다.

그렇다면 지금은 주 5일(8시간×5일=40시간)의 3년의 실무기간(40시간×52주×3년)임을 감안하면 6,240시간이 지나면 건축사자격시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보통 자격취득 이후에도 2년여 정도는 더 실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1만 시간이 넘는 기간이다.

물론 학교에서의 1년의 수학 과정이 있기에 이것이 정확한 데이터를 삼을 수는 없겠지만 건축사자격 취득 이후 개업이라는 새로운 전환점은 세상 밖에 홀로 남겨진 듯한 무한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현실이다. 설계업무 이외에도 건축사가 알아야 할 여러 가지의 법령들과 책임, 그리고 새로운 업무나 규제, 그것에 따른 두려움. 나 또한 그러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건축사 포함 5인 이하 사무실이 85.9%이고 1인 건축사사무소가 43.2%이라는(건축연구원 2020년 조사기준) 현실에도 불구하고 해가 거듭될수록 건축사 혼자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

건축사보를 보유해야 점검 등이 가능하고 상주감리나 그 밖의 다양한 업무도 수주가 가능하니 더욱 그래해 보인다.

우리 협회나 기성 건축사들은 후배들의 이러한 고충을 함께 해야 한다. 협회 회원뿐만 아니라 개업을 하지 않는 건축사, 더 나아가서는 건축실무수련을 하고 있는 건축사보들까지도 건축사들에게 하는 실무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하고 건축사실적처럼 경력에 올릴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자문위원 _ 박종호 건축사(k21024@chol.com)

건축사 만평



이경탁 건축사 작 / 프라임 건축사사무소(광주)/광주건축사미술동호회

New, Different, Better



호남지사장 / 이사 김유성
010. 5007. 8437 | 3rsinhwa@hanmail.net

전화 070-4482-0257 팩스 062-975-0140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22, 와이어스파크 A동 1114호(오룡동)

www.bs-base.co.kr

EcoSM 기반개량 · TerraCell 기반개량 · GeoCon 침하지반보강/복원
마이크로파일 · 팽이 기초 · 로타리파일(헬리컬) · 강관압입파일

이광원 & 조선희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광원
• 전남 영광 출생
• 광주 국제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활동
• 광주 동구 젠트리피케이션 전담 법률지원단 '젠트리피터' 위원
• 광주YMCA 시민권변호인단 단원

변호사 조선희
• 전남 강진 출생
• 영암여자고등학교 졸업
• 전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전남대 산업대학원 건축공학과 수료
• 광주광역시 건축위원회 위원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지원단 자문위원

광주 동구 동명로 107, 402호 T. 062)234-7417 F. 062)234-7418 E. law7417@daum.net

건축문화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 발행인: 정인재, 한형민, 박진만
- 편집인: 박주현
- 부편집인: 임현정, 육광돈, 임태형
- 자문위원: 서재형, 정명환, 강동영, 박종호
- 전담기자: 김성완
- 논설위원: 이순미, 신영은, 박신남, 강필서, 이종순, 백재봉, 정영범, 김미영, 정관성, 양우현
- 편집위원: 윤미순, 양창근, 최정미, 김영규, 이원규, 정영진, 허만수, 설혜순, 오선화, 임용훈
-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 간벌: 월간
- 등록일자: 2010-01-25
- 편집및인쇄: 레이아웃 T. 070-8277-2589
- 광고신청: T. 062)521-0025

광고 및 구독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후면 전면광고 : 1,000,000원
- 후면 외 전면광고 : 700,000원
- 하단광고 : 350,000원
- 하단1/2광고 : 200,000원
- 구독료 : 20,000원/1년
- 구독료입금계좌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계좌번호 : 신한 131-009-471898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521-0025~6 F. 062)528-0026

건축문화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발전기금 : 1만 원부터
- 후원방식 : 신한 131-009-471898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건축문화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상/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독자만평/기타(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취득, 교수임용 등)

원고마감 : 매달 25일
문의 : 광주건축사회(T. 062-521-0025 / gjkira@empal.com)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3. 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pt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명화루(明華樓)

한성호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아이든
 전북 군산시 미장안7길 16, 301호
 Tel. 070-8276-27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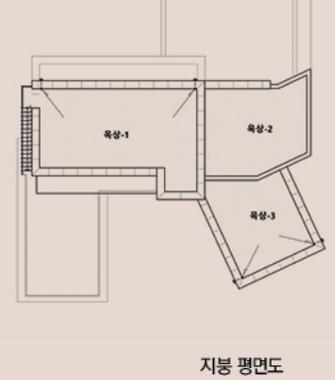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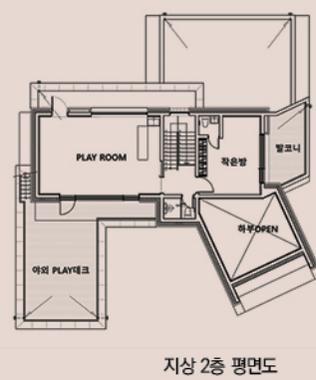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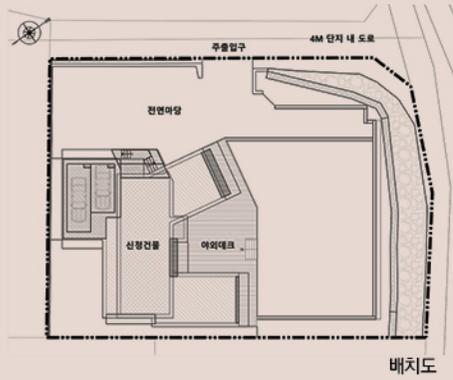
대지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도암리 108-56번지 / 대지면적 : 1,126㎡ / 건축면적 : 221.24㎡ / 연면적 : 234.35㎡ / 규모 : 지상 2층 / 주용도 : 단독주택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주요 마감 : 모노벽돌치장쌓기, T15목재사이딩, 노출콘크리트마감



당해 부지는 한적한 시골 마을의 나지막한 산자락에 조성된 7개 필지의 주택단지이다.

전면으로 낮은 언덕과 넓은 논밭이 있는 열린 조망을 가지며, 남북방향으로 긴 대지 형상과 남쪽의 주도로보다 3m 높은 대지 레벨을 가지고 있는 부지이다.

동쪽 단지 내 도로에서의 차량과 보행 진입을 고려하고 남쪽으로 넓은 잔디마당을 가지며 주변 주택으로부터의 프라이버시 확보와 독립된 영역을 갖되, 전면의 열린 경관을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 어느 곳에서든 교감할 수 있는 데 가장 큰 주안점을 두었다.



아킴



K비대면바우처 새해대박! 최대 280만원지원

문의 02 3462 1336
 이기상 건축사직통 010-8276-6158
 더 알아보기 www.arkim.kr
놓치면 후회!!



전북건축사회, 2022 한마음 걷기대회 개최

지난 11월 25일 부안 해남이슬섬길에서... 회원 등 101명 참가



전북건축사회(회장 박진만)는 지난 11월 25일 전북 부안군 변산면 소재 해남이슬섬길에서 회원 및 회원 가족 등 101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2 전북 건축사 한마음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전주지역건축사회(회장 이성열)가 주관했으며, 참가자들은 부안의 아름다운 해안선을 따라 이어진 아름다운 바다 경치와 아울러 늦가을 경치를 만끽하며 돌레길을 걷고 중식과 함께 상호간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박진만 회장은 "코로나로 인해 회원간 만남의 시간이 부족하였지만, 엔데믹 시대를 맞아 앞으로도 이와 같은 단합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회원 화합과 도회 발전을 도모코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 건축사 한마음 걷기대회는 격년으로 전주지역건축사회와 시·군 건축사회연합으로 주관하여 매년 개최해 오고 있었으나 코로나19로 2020년, 2021년은 개최하지 못하다 3년 만에 개최하게 되었다.

전라북도건축사회, 주거취약계층 이웃돕기성금

주거취약계층 이웃돕기성금 1,000만 원 전달



대한건축사협회 전라북도건축사회(회장 박진만)는 지난 16일 전라북도청을 방문하여 전라북도에 에너지 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고물가 상황 속에 경기 위축으로 여는 때보다 힘겨운 겨울을 보낼 지역사회 내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써 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1,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전라북도는 전달된 성금을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주연탄은행과 주거 취약계층에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에 쓸 예정이다. 박진만 회장은 "추운 날씨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을 위해 이웃사랑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건축 전문단체로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북도건축사회는 쾌적한 도시 및 건축 환경 조성을 위해 1965년에 설립하여 회원 수 483명으로 구성된 건축 전문가 단체로 매년 이웃돕기 성금 기탁과 재능기부를 통해 도내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전주시 완산구, 글로벌 관광지 도약을 위한 오목대 환경 개선사업 추진

산책로 개선, 경관조명 신설 등을 통한 아름다운 경관 조성으로 관광 활성화 도모

전주시를 찾는 많은 관광객의 사랑을 받고 있는 오목대 일원이 글로벌 관광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아름다운 관광지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1974년 전라북도 기념물 제16호로 지정된 오목대는 이성계가 황산에서 왜구를 토벌하고 귀경하는 도중 승전을 자축하는 연회를 열었던 곳이며, 1900년 고종이 친필로 쓴 태조고황제주필유지(太祖高皇帝駐畢遺址 : 태조가 잠시 머물렀던 곳)가 새겨진 비가 세워진 곳으로 전주 한옥마을과 더불어 관광객의 필수 관광코스로 자리하며 전주시민의 산책길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나 구간 목재 데크 등 시설물의 노후화와 빗물로 인한 토사유실 등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었다. 전주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오목대가 더욱더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의 쉼터로써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오목대 글로벌 관광환경 개선사업'을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하여 기존 데크 산책로 약 400m 정비, 휴식장소 및 야외무대를 위한 전망대 확대, 조명을 통한 야간산책코스 조성, 수목 식재를 통한 경관을 개선할 계획이며 특히 그동안 오목대 위에서 한옥마을 조망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숲가꾸기 사업 등을 통해 오목대 정상에서 한옥마을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완산구청장은 이번 오목대 글로벌 관광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전주 한옥마을과 더불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오목대를 관광객과 시민 여러분이 더욱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신흥도시숲에 달동네의 이야기를 담다

신흥도시숲 공원 일원에 야간경관 조성사업

군산시는 28일 전라북도 공모사업을 통해 신흥도시숲 공원 일원에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1단계 사업은 경사지와 계단식 지형 등 다양한 공간구조를 이용한 체험형 야간 경관조명 사업이다. 달조명 등을 설치해 아늑한 분위기와 공원을 적극적으로 즐길 수 있는 볼거리를 조성했으며 지난 10월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4억 원 규모의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 추가사업비를 지원해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곧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2단계 사업은 3억 6천만 원 규모로, 옛 달동네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대규모 옹벽에 신흥도시숲과 말랭이마을의 이야기를 담아낸 벽화와 경관조명을 가미한 조형물 등을 통해 친근하면서도 상징적인 공간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신흥도시숲 공원이 주민에게 작은 위로와 삶의 활력이 되고, 신흥동 일대 관광지의 중심공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창군, 2023년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

2023년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공모

순창군이 마을 역량에 맞는 단계별 지원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촌마을 조성에 나선다. 군은 오는 15일까지 '2023년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공모사업에 참여할 관내 마을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마을 만들기 자율개발사업은 노후화된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 기초생활기반 확충과 담장 개·보수와 마을 안길 정비 등 경관개선, 주민교육 및 선진지 견학 등 주민의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이 사업은 마을의 다양한 유·무형 자원과 특성을 기반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공모하는 상향식으로 추진하며 5개소를 선정할 계획으로 선정된 마을에 사업 기간 3년에 걸쳐 최대 5억 원을 지원한다.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마을은 농촌현장포럼과 생생마을 기초단체, 마을 리더 교육 등 지역개발 관련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단, 주민주도의 자율적인 마을 사업 추진역량을 견비하고, 사업 지원 시 노후화된 주민 기초생활기반을 확충하는 등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마을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마을임을 읍·면장이 확인하고 추천할 경우에는 참여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15일까지며, 순창군청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마을 회의록 등을 첨부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해당 읍면에서 사업성 검토를 거쳐 신청서가 제출되면, 자격요건과 서면점검 등 적합성 검토 후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마을 역량에 맞는 단계별 지원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마을 조성을 위해 매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통해 공동체 의식 강화와 네트워크 활성화, 주민편의 증진사업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3년부터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관내 20곳의 마을이 사업이 완료되어 생활기반이 확충되고 마을 경관이 개선됐다. 올해에는 유등면 학촌마을과 인계면 쌍암마을의 마을만들기 사업이 완료돼 주민들로부터 "사랑방 역할을 하던 마을회관이 새 단장 되어 주민의 화합과 단결에도 도움이 되었다"는 호평을 받았다.

전북 회원동성

- **변경(소재지)**
 - 조현호 건축사 / 이안 건축사사무소 / 전북 군산시 조촌4길 47, 3층
 - 국 현 건축사 / 행복 건축사사무소 / 전북 군산시 조촌안1길 30, 302호
 - 최형규 건축사 / 1010 건축사사무소 / 전북 완주군 이서면 반교로 99, 501호
 - 김준희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예루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아중로 189, 201호
 - 강승기 건축사 / (주)태평양 건축사사무소 / 전북 무주군 무주읍 단천로 145, 201호
 - 이재현 건축사 / 상상디자인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387, 3층
 - 송일섭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건담 / 전북 완주군 용진읍 원구역1길 17-1, 102호
- **결혼**
 - 정용균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세운건축 / 딸 결혼 - 11월 13일(일)
 - 이성수 건축사 / 한아 건축사사무소 / 아들 결혼 - 11월 26일(토)
- **부고**
 - 장근홍 건축사 / 살롬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11월 9일(수)
 - 김영길 건축사 / 선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11월 17일(목)

K씨 노대동 주택

양동윤 건축사 / 에이디 건축사사무소 윤

광주 북구 침단과기로208번길 43-10, 마루힐BC지식산업센터 A동 701a호
Tel. 062-972-2248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노대동 799번지 / 대지면적 : 261.40㎡ / 건축면적 : 90.72㎡ / 연면적 : 245.88㎡ / 건폐율 : 34.7% / 용적률 : 78.56%
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 주용도 : 단독주택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주요 마감 : 노출콘크리트

‘호남 최대 창업 단지’ 광주역 창업벨트 조성 속도

내년부터 복합허브센터·기업혁신성장센터 등 창업시설 구축...



광주광역시는 지난 24일 코레일 이사회에서 광주역 도시재생 혁신지구 부지매각 건이 승인됨에 따라 혁신지구 전체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혁신지구 부지는 코레일과 국토부가 각각 소유하고 있

으며, 이중 국토부와는 지난 10월 협의를 완료하고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역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광주역 후면 유휴부지 1만 4,224㎡에 복합허브센터, 기업혁신성장센터 등 창업 지원시설을 구축해 그린-디지털 분야 창업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0년 12월 국토부 공모에 선정되면서 추진됐다.

광주광역시는 공모 당시 국토부, 코레일로부터 부지 매각이 가능하다는 공문을 받고 추진했으나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광주역을 경유하는 달빛내륙철도가 반영되면서 혁신지구 부지와 달빛내륙철도 예상 노선 간 저촉 가능성, 광주역 주변 여건 변화에 따른 토지 가치 상승 기대 등으로 인해 부지 매입이 어려워졌다.

이에 광주광역시는 달빛고속철도 예상 노선을 제외한 부지변경(안)을 마련해 각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인 조오섭 의원의 지원 등에 힘입어 각 기관의 매각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사업 추진에 가장 큰 난관이었던 부지 문제가 해결되면서 광주역 도시재생 혁신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광주역 창업벨트 조성도 속도를 내게 됐다.

광주역 창업벨트는 민선 8기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5대 벨트 중 하나로 광주역 도시재생 혁신지구사업과 광주역 경제기반형 뉴딜사업을 통해 호남권 최대 규모의 창업 단지를 조성하게 된다.

광주역 경제기반형 뉴딜사업은 5개 마중물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중 빛고을창업스테이션은 연말 계획공정률이 38%로, 2024년부터는 초기 창업 기업을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복합허브센터, 기업혁신성장센터 등 광주역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도 본격 추진하고 2027년부터는 광주역 창업벨트를 중심으로 관내 창업 시설을 연계해 창업 전주기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광주광역시의 노력과 조오섭 국회의원·중앙부처의 협조 덕분에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됐다”며 “광주역 창업벨트를 통해 광주역 인근이 활력을 되찾고 광주가 창업 성공률 높은 기회도시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비엔날레전시관 건립 속도 낸다

첫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각계 의견 수렴

광주광역시는 15일 시청 세미나실에서 ‘광주비엔날레전시관 건립 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광주광역시는 세계적인 수준의 위상에 걸맞은 전용 전시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총사업비 1,181억 원을 투입해 현 비엔날레 주차장 부지에 건축 연면적 2만 3,500㎡, 지상 3층 규모의 광주비엔날레전시관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완공 목표는 2026년이다.

이 사업은 지난 5월 6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으며, 8월 22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는 등 속도를 내왔다. 이어 광주광역시는 올해 말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건축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는 국제현상설계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광주비엔날레전시관이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랜드마크로서 성공적으로 건립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계에 앞서 문화계, 건축계, 언론계, 학계, 시의회, 공무원 등 10명으로 구성된 ‘광주비엔날레전시관 건립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이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건립 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 착수보고회를 같이 진행하고, 비엔날레 전시관 건립과 관련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광주광역시,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자문 실시

관내 1천㎡ 이상 착공현장 10개소 대상 시범 운영

광주광역시는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관내 1,000㎡ 이상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 및 현장관리 컨설팅 자문을 실시했다.

통상적인 현장점검은 진행 중인 공사현장을 방문해 지적사항 위주로 점검하는데 반해 이번 컨설팅 자문은 소규모 건축공사장 중 착공 직후 10개소를 대상으로 공사 초기부터 공사 완료까지 중점관리가 필요한 안전 및 현장관리 요소에 대해 자문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는 공사현장의 애로사항을 고려해 공사 착공 때 현장대리인, 공사감리 등 건설공사 관계자가 놓치기 쉬운 안전관리사항에 대한 사전 자문이 안전사고 예방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판단해 추진됐다.

한 공사현장 관계자는 “이번 광주광역시 컨설팅은 공사 중 안전관리를 현장에 적용하기 쉽도록 본격적인 공사 추진 전에 공정별로 필요한 안전 위해요소를 미리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와 관련, 광주광역시는 안전관리가 우수한 현장의 우수사례를 다른 공사현장과 공유하고 우수 안전관리 현장 관계자 등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 건축공사장과 해체공사장의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 7월 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고 건축사, 구조전문가를 채용해 건축물에 대한 전문적인 안전관리를 추



K씨 노대동 주택은 부부와 자녀 2명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축주는 50대 후반으로 아파트에서 단독주택으로 이동하는데 다양한 취미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요구하였다. 대지는 북측 1면 도로에 접하고 있으며 서측에 단독주택, 남측엔 주차장 전용 건물이 3층으로 지어져 있는 위치로 전망 확보가 어려운 대지였다. 배치계획은 동·남·서쪽 인접대지에 건축물로 막힐 수 밖에 없는 여건으로 중정 형식으로 배치하였고, 다양한 취미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작은 동을 따로 배치하여 썬큰이 있는 지하층과 2층 사우나실을 배치하고 주거동과의 동선은 스킵플로어 방식으로 수직 동선을 짧게 유도하였다. 그리고, 남측 주차장 건물벽면을 스크린으로 사용하여 대형 영화관의 느낌으로 영화를 감상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하여 각층 복도, 거실에서 관람 할 수 있게 배치를 하였으며, 지하 취미실 앞 넓은 썬큰은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은 가든 파티와 겨울철 눈에 쌓인 기와를 볼 수 있는 포근하고 따뜻한 전통담장의 형태로 계획하였다.



진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건축경관과장은 “이번 안전관리 자문은 광주광역시 건축안전센터 전문 인력을 활용해 본격적인 공사 시행에 앞서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 시 놓치기 쉬운 현장관리 방법 등을 전수하고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됐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 시작과 함께 안전관리 자문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남구, '2023년 개별 공시지가' 조사 착수

각종 부담금 부과 대상 6만 2,500여 필지, 내년 3월 중순 열람 가능... 6월말까지 확정

광주광역시 남구는 18일 “2023년도 개별 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를 위해 관내 6만 2,000여 필지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공시지가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국세 및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지가 산정을 기반으로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는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각종 부담금의 부과 대상 토지로, 관내 전체 6만 2,500필지가량인 것으로 파악된다.

남구는 현장조사와 함께 남구 지역의 실거래가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개별지 특성과 표준지를 비교해 공시지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남구는 오는 23일부터 2023년 1월 19일까지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하고, 같은 해 1월 말부터 3월 중순까지 지가 산정 및 산정지가 검증에 나설 방침이다.

또 내년 3월 17일부터 4월 20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8일께 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에 나서기로 했다. 공시지가 결정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공시가격은 한 달간 지가 조정을 거쳐 6월 27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남구는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및 합병 등 토지 소유에 대한 이동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도 별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 동구, 국토부·광주광역시 합동 기획점검 나선다

전라남도, 우수 설치사례 디자인 2개 분야 공모

광주광역시 동구는 재개발 비리를 엄단하고 투명·안전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국토교통부·광주광역시와 ‘민·관 합동 재개발 기획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구는 올해 1월부터 5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재개발 기획점검반’ 운영에 돌입해 재개발사업 용역 계약 및 분양권 비리 등 부조리 척결 재개발조합 운영실태 및 공사 현장점검 등 안전한 재개발사업 체계 구축 등을 실시했다.

이달 14일부터 18일까지 계림1구역 일원에서 국토부·광주광역시와 기존 재개발 기획점검반이 합동으로 재개발 기획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전문적인 내용이 포함된 각종 용역 계약 사안을 보다 꼼꼼히 살피고 점검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시공사 및 용역 계약, 회계처리 등을 집중 점검해 재개발 비리 근절에 나

설 계획이다.

동구는 이번 기획점검을 계기로 재개발사업 투명성 확보와 재개발사업 현장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요구 등 의견수렴을 통해 재개발조합 운영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구청장은 “동구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지속가능한 안전도시 환경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번 합동 기획점검을 통해 동구에서 추진 중인 모든 재개발사업의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건축공사현장 안전점검

폭설·강풍 대비 취약시설 대상... 비상용 제설 자재 확보 여부 등

광주광역시시는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1일부터 12일까지 주요 건축 공사 현장에 대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무등야구장, 빙고를 창업스테이션 등 대형 건축공사 현장 5곳과 중소규모 건축공사 현장 등이다. 특히 안전 점검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 전문가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진행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폭설 대비 비상용 제설 자재 및 장비 확보 여부, 난방·전열기구 용접작업에 대한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화재감지자 배치 여부, 폭설·강풍 등을 대비한 가설구조물 전도, 침하 예방관리 등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실태 전반이다.

광주광역시시는 안전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즉시 조치하기 어려운 사항은 우선 응급조치 후 위험요인 해소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종합건설본부장은 “최근 사회적으로 잦은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해 국민적 관심이 높고, 동절기에는 예기치 못한 폭설·강풍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며 “예방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로 건설현장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회원동성

- **입회**
- 정창균 건축사 / 에이플로우 건축사사무소 / 광주 동구 제봉로138번길 9
- **전입**
- 김재희 건축사 / 센터 건축사사무소 / 광주 서구 상무민주로 123, 4층 401호
- **결혼**
- 최성규 건축사 / (주)수 건축사사무소 / 장녀 결혼 - 12월 11일(일)
- **부고**
- 강현구 건축사 / 소형 건축사사무소(주) / 장인 별세 - 11월 28일(월)

전라남도건축사회 임원워크숍 개최

전남권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3층 세미나실에서...



전라남도건축사회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협회의 현안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상호의 소통과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 2022년 11월 25일(금) 전남권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세미나실에서 한형민 회장을 비롯하여 각 지역 건축사회 회장 등 16명이 참석하여

임원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날 워크숍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이 됐고, 발제 안건에 대한 토론과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협회 임원 간의 소통과 업무력 강화를 위한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2022 찾아가는 공공건축 교육 개최

11월 30일 수요일 오후 2시, 순천만 국제습지센터 입체영상관에서



공공건축의 제도 및 정책 변화 등을 공유하고 공공건축의 품격향상을 위해 “2022 찾아가는 공공건축 교육”이 11월 30일 순천만 국제습지센터 입체영상관(1층)에서 개최됐다. 전라남도건축사회 회원과도, 시·군 공공건축사업 담당자가 참여한 이번 교육에서는 사업계획

사전검토와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제도의 이해(백선경 부연구위원)와 공공건축 기획업무의 이해(방재성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장)라는 주제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전라남도, 지적재조사 업무 역량 강화

보성 다비치콘도에서 워크숍 갖고 2023년 사업 준비 본격 착수

전라남도는 18일까지 이틀간 보성 다비치콘도에서 업무 공유와 담당자 간 역할 강화를 위한 2022년 전라남도 지적재조사 워크숍을 개최하고 2023년 사업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처음 열린 이번 워크숍에 시군 공무원과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등 110명이 참석해 지적재조사 교육과 업무 공유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또 지적재조사사업 및 세계측지계변환 업무추진에 기여한 공로로 공무원, 책임수행기관, 대행자 등 10명에게 전라남도지사 표창을 전달하고 노고를 위로했다.

전라남도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국비 535억 원을 투입해 486개 지구 30만 필지의 한국형 스마트 지적을 완성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전체 사업비의 20%인 104억 원, 전국 최다 사업비를 확보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함께 전라남도가 지적재조사사업 전국 1위라는 명성을 얻는 등 도민들도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라남도 관계자는 “시군, 책임수행기관, 대행자 등과의 유기적 협력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 정확한 지적정보를 구축해 도민 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 균형위 간담회서 혁신도시 현안 건의

발전센터 운영 국비 지원풍력발전 특별법 연내 제정 등 강조

전라남도는 16일 빛가람혁신도시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혁신도시 활성화와 공공기관 2차 이전 의견수렴 간담회에서 혁신도시 발전센터 국비 지원 등 현안과 풍력발전 특별법 연내 제정 등 제도 개선사항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명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균형발전국장,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이전공공기관, 국토연구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각 혁신도시 현황을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논의했다.

전라남도는 복합혁신센터, 생활SOC복합센터, 산학연클러스터 구축 등 주요 사업 추진 현황 설명과 함께 혁신도시 발전센터 운영비 국비 요청, 지역물품 우선구매 운영기준 개선, 지역인재 채용 예외 규정 완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적극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산학연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 연구소 등에 지원하는 임차료, 대출금 이자 지원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2023년 국비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또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선정 평가지표 개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및 육성 특별법’ 개정,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연내 제정 등 전라남도 현안 과제도 자세히 설명했다.

전라북도는 전주 키즈복합혁신센터, 완주 공주팔쥐도서관 건립 현황 보고에 이어 정주여건 개선 소규모사업비 지원, 연계 상생발전 확산사업 예산 확대를 요청했다.

균형발전국장은 “권역별 간담회를 통해 지역별 이전공공기관의 의견을 듣고 2차 이전에 대해 검토하겠다”며 “자치단체에서 건의한 사항은 위원회별로 검토해 국가균형발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는 한국전력공사 등 16개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해 지역상생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정주여건 개선 사업으로 생활SOC복합센터(2023

칠성리 주택

백재은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인증현
전남 광양시 눈쇠길 3-7, 2층
Tel. 061-793-8503



대지위치 : 전라남도 광양읍 칠성리 929-12 / 대지면적 : 348.40㎡ / 건축면적 : 156.47㎡ / 연면적 : 199.01㎡ / 건폐율 : 44.91%
용적률 : 57.12% / 규모 : 지상 2층 / 주용도 : 단독주택

년 12월)와 복합혁신센터(2024년 12월)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또 지난해 말 기준 누적 477개 기업이 입주해 3천 804명을 고용했으며 전년 대비 137개 기업이 증가해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나주시, '빛가람 호수공원' 제22회 자연환경대상 공모전 대상 수상
 '배메산, 도시와 자연을 잇다' 고립된 도시 숲 자연성 회복과 확장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에 조성된 나주시 '빛가람 호수공원'이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로 부각되고 있는 자연환경 보전과 생태 복원의 전국 으뜸 사례로 인정받았다.

나주시는 빛가람 호수공원이 (사)한국 생태복원협회가 주최하는 '2022년 제22

회 자연환경대상 공모전' 대상에 선정돼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후원하는 자연환경대상은 생물서식지 복원, 도시 및 인공지반, 하천·습지, 공원·녹지, 훼손지 등을 생태적·친환경적으로 우수하게 보전·복원한 사례를 발굴·선정한다. 탄소중립 및 생태계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과 관련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 중인 가운데 녹색산업 발전, 환경서비스 확대를 위한 하나의 모델로 제시, 발전시키는 데 주안점을 둔 생태복원 분야 최고 권위 상이다.

나주시 빛가람 호수공원은 '고립된 도시 숲의 자연성 회복과 확장'을 슬로건으로 사업 부문 대상 수상 쾌거를 안았다. 특히 생태적 건전성, 사람과 자연생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옥상·수공간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혁신도시 중앙 부분에 위치한 빛가람 호수공원은 지난 2015년 총면적 52만 1,861㎡ 규모로 당초 인공호수로 조성됐으나 자연성 회복과 확장에 중점을 둔 나주시 생태계 강화 전략을 통해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호수로 변모했다.

공원 중앙에 솟은 배메산은 개발 과정에서 고립되고 일부 숲이 훼손되기도 했지만 이후 기존 숲과 수생태계의 복원·확장, 생물서식처 다양화 전략을 통해 도시와 자연을 잇는 그린 네트워크 거점으로 자리 잡았다.

종 다양성을 보유한 생태호수가 된 빛가람 호수공원은 조류의 경우 33종·434개체를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했으며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 수달과 2급 삿대지 등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빛가람전망대, 유아숲, 모노레일, 돌미끄럼틀, 야외공연장, 음악·바다분수 등 관광 자원으로 활용도가 높아 도심 속 녹색 힐링 장소로 각광받고 있다.

나주시장은 "이번 자연환경대상 수상을 통해 빛가람 호수공원은 주민들의 명품 휴식공간이자 전국 최고 수준의 생태호수공원, 빛가람 전망대와 함께 나주를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 도약할 수 있는 하나의 스토리가 입혀졌다"라며 "도심 속 자연

과 사람을 잇는 호수공원으로서 지속가능한 생태계와 주민들의 생태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여수시, 죽림 '어린이도서관' 건립 착수보고회 개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 총사업비 92억 4천만 원... 2024년 12월 개관 목표



여수시가 지난 10일 쌍봉도서관에서 죽림 '여수시 어린이도서관' 건립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여수시 나병곤 관광문화교육국장, 시립도서관장, 어린이도서관 건립 자문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먼저 설계 공모에 당선된 (주)아이에스피 건축사사무소와 공동 응모사인 건축사사무소 지평이 어린이 특화 도서관 조성을 위한 착수 보고를 발표했다.

이어 여수시 최초의 어린이도서관에 아이들과 이용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내부 공간계획, 관리운영 방안 등 자문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여수시 어린이도서관은 총사업비 92억 4천만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500㎡ 규모로 건립된다. 내년 5월 착공해 2024년 12월 개관할 예정이다.

이날 착수 보고에 따르면 어린이도서관은 기존의 획일적이고 벽으로 구획된 엄숙한 분위기에서 벗어나 어린이들이 마음껏 즐기면서 평생 독서의 습관을 기를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된다. 또한 공동육아나눔터를 함께 조성해 어린이와 보호자가 같이 휴식하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가족 친화적 공간도 꾸며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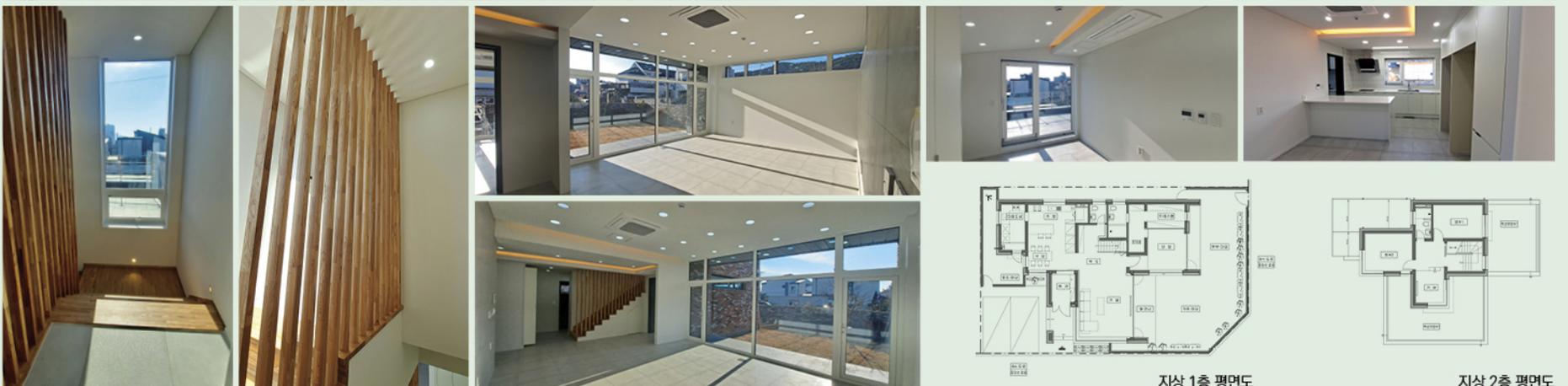
관광문화교육국장은 "이번 착수보고회에 나온 자문위원님들의 좋은 의견들을 반영해 설계를 보완하고 보다 완성도 높은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하겠다"면서 "어린이들의 꿈과 창의성을 키우는 공간으로, 교육, 돌봄, 체험, 문화가 어우러지는 복합 플랫폼으로 조성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전했다.

전남 회원동정

- **입회**
- 김민수 건축사 / 푸른 건축사사무소 /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42
- **재입회**
- 이진오 건축사 / (유)건축사사무소 집 / 전남 목포시 후광대로 128, 3층 302호
- **부고**
- 오병돈 건축사 / 플러스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11월 7일(월)
- 이종호 건축사 / 성진 건축사사무소 / 부친상 - 11월 27일(일)



단독 주택지로 개발된 곳에 위치한 코너 대지에 건축주는 가족만의 외부 공간을 가진 주택을 건축하기를 희망하였다. 이에 마당을 통한 주 진입이 아닌 도로에서 캐노피를 가진 현관을 통한 직접 진입을 제안하였고, 주변과 독립적인 마당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 마당은 건물 매스의 변화를 통해 각각 거실과 안방의 마당으로 시각적인 통합과 분절이 가능하게 조성하였고, 보행자 시선을 고려한 담장을 설치하여 내부 사생활은 보호되면서 가로변에서는 폐쇄적이지 않은 형태가 되도록 계획하였다. 다용도실 전면 마당에도 낮은 담장을 설치하여 외부 주차장과 구별되는 보조 마당이 형성되도록 하였다. 거실과 안방에는 고층창을 설치하여 원경의 산자락을 내부 시선으로 끌어들이도록 계획하였다. 건축물 매스의 변화를 강조하기 위해 두가지 색상의 벽돌 적용, 옥상의 유리난간과 벽돌 벽 난간의 구별 사용, 매스를 파고들어 간 외부 캐노피와 발코니의 배치 등을 고민하였다.



지상 1층 평면도

지상 2층 평면도



제26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 ◎ **시상목적** : 독창적이고 품격 있는 설계로 건축문화 창달에 기여한 우수 건축사와 건축물을 선정·시상하여 건축사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나아가 건축저변 확대와 광주지역 우수 건축 장려를 통해 「광주,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시책을 제고하기 위함.
- ◎ **응모대상** : 광주광역시 관내에서 최근 5년 이내(공고일 기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이나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건축물(리모델링 포함). 다만 광주시에서 이미 시상 받은 건축물은 제외함.
- ◎ **응모기간** : 2022. 9. 5. (월) ~ 9. 16. (금) 1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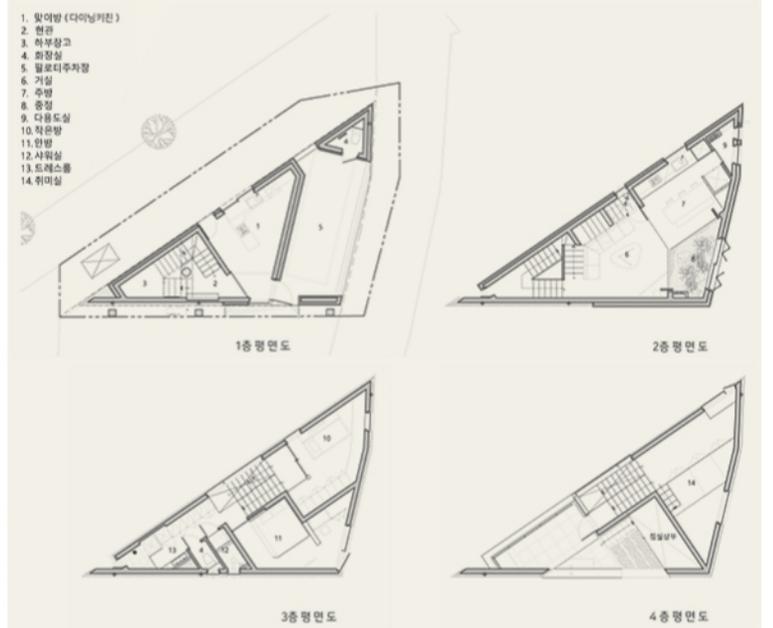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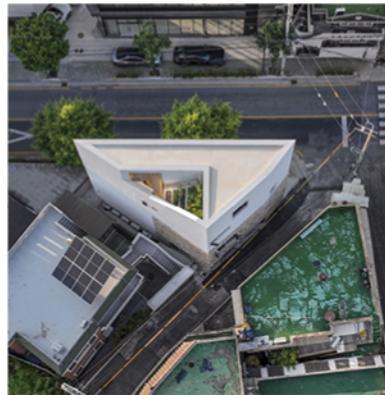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220-2 / 대지면적 : 98.00㎡ / 건축면적 : 51.14㎡ / 연면적 : 178.15㎡ / 건폐율 : 49.79% / 용적률 : 152.29% / 규모 : 지상 4층
 주용도 : 주택(단독주택) / 구조 : 철근콘크리트 / 주요 마감 : 자연석쌓기, 스티코 외단열 시스템, 삼중 로이유리

주거(통합) 부문 최우수상 '지산 돌집'

설계자 : 임태형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플랜
 시공자 : 이현철 대표 / 디엠산업개발(주)

지산 돌집의 부지는 무등산국립공원과 광주 도심의 경계면에 위치한다. 자연과 도시를 이어주는 왕복 2차선 도로를 접근도로로 하며, 높다란 은행나무 가로수와 오래된 주택들, 그리고 상업건축물이 혼재된 가로경관에 속해있다. 뚜렷한 주거지의 모습도 아니고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상업가로의 모습도 아닌 이곳은 오래전 도로가 정비되는 과정에서 땅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면적이 축소된 삼각형 형태를 띠게 되었고, 동 측면에 접한 이면도로의 확 폭 기준에 의한 대지 면적 제외, 시가지 경관지구에 의한 전면도로변 2m 후퇴로 인하여 설계 가용면적이 62.73㎡로 대폭 축소되었다. 삼각형 부지의 세 개 면 중 2개의 면은 도로에 접하였고, 남향을 바라보는 면은 인접한 건축물로 가려진 상황이었다.

이제 막 새로운 가정을 꾸린 젊은 건축주 부부에게 있어 부지의 협소함과 부정형 형태라는 약조건은 외려 접근 가능한 수준의 토지가격을 형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무등산 자락에 인접한 입지적 특성은 건축물과 주변 경관이 새로운 관계성을 모색할 수 있는 잠재력으로 받아들여졌다.



- ◎ 시상 구분 :
 - 사회공공 부문 : 관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 최우수작(1점), 우수작(1점)
 - 민간 부문 : 민간에서 발주하는 건축물 / 최우수작(1점), 우수작(1점)
 - 주거 부문(통합) : 최우수작(1점), 우수작(1점)
 - 리모델링 부문 : 리모델링 건축물 / 최우수작(1점), 우수작(1점)
- ◎ 수여 내용 : 설계자 ⇒ 광주광역시장상 및 상금 / 시공자 ⇒ 광주광역시장상 / 건축주 ⇒ 건축물에 동판 부착
- ◎ 부문별 상금 : 각 부문별 최우수작 설계자 1,500,000원 / 우수작 1,000,000원

◎ 심사위원 : 7인

소속	성명
광주건축사회(당연직 위원장)	안길전 건축사 / 일우 건축
광주건축사회(위원)	이광천 건축사 / 동신 건축
광주시 건축경관과(위원)	박금화 건축경관과장
광주전남건축가회(위원)	길종원 교수 / 조선이공대
광주전남건축가회(위원)	최재영 교수 / 광주대
광주전남건축가회(위원)	유창균 교수 / 목포대
광주전남건축가회(위원)	한승훈 교수 / 전남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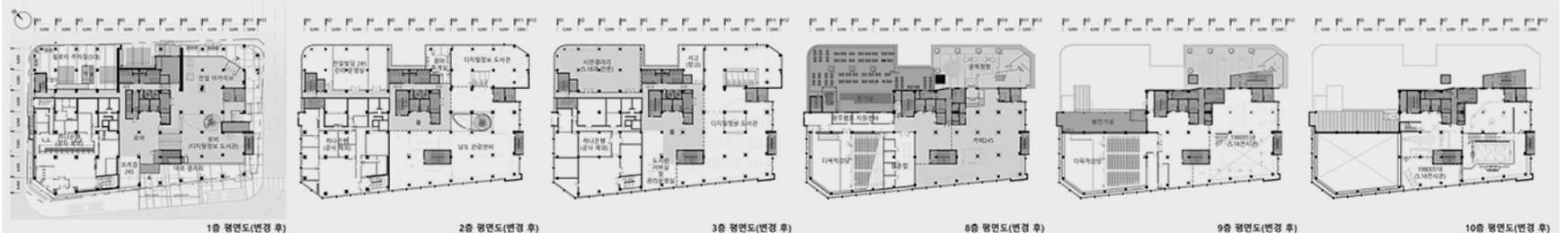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1-1 외 1필지 / 대지면적 : 2,778.10㎡ / 건축면적 : 2,483.32㎡ / 연면적 : 19,243.08㎡(하나은행 제외) / 건폐율 : 89.39% / 용적률 : 661.39%
 규모 : 지하 1층, 지상 10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주요 마감 : 수성페인트, 삼중유리, 복층유리

리모델링 부문 최우수상 '전일빌딩245'

설계자 : 이주경 건축사 / (주)아이에스피 건축사사무소
 김기한 건축사 / (주)정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자 : 김영찬 대표 / (주)삼진종합건설

원형 보존 리모델링을 통해 탄생 245빌이라는 아픔을 다시 기록하며 태어난 전일빌딩의 외부는 그 전과 99% 동일한 모습이지만 내부는 전혀럼 사무실 용도가 아닌 시민문화시설로 사용된다. 지하 1층부터 4층까지는 시민문화공간, 5층부터 7층은 문화 콘텐츠 창작 공간, 9층과 10층은 5·18 기념 공간, 8층과 옥상은 휴게 공간으로 사용하는 복합문화공간이다. 1960년대에 금남로에 들어선 최초의 10층 건축물이 그 당시에도, 시간이 지나 현재에도 랜드마크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경제 및 구도심 활성화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보존하는 역사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래본다.



1층 평면도(변경 후)

2층 평면도(변경 후)

3층 평면도(변경 후)

8층 평면도(변경 후)

9층 평면도(변경 후)

10층 평면도(변경 후)

책 소개 _ 박희주 독자 / 광주광역시 노대동

마치우시 왕 1세

야누시 코르차크 저 / 이지원 역 / 시공주니어 / 2017. 09. 20.

그 이름도 생소한, 폴란드의 동화 '마치우시 왕 1세'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마치우시 왕 1세'를 집필한 야누슈 코르차크는 몬테소리과 비견되는 폴란드의 유명 교육자입니다. 우리나라로 비교하자면, 폴란드의 방정환과 같은 인물이지요. 유대계 아버지를 둔 그는 의사 면허를 취득하여 소아과 의사를 하다 전쟁이 발발하자 고통받는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보육원의 원장이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지속되고, 나치스의 홀로코스트가 극에 다다를 시점에는 결국 그가 돌보던 유대인 아이들마저 가스실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그 자신은 죽음의 행렬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음에도 도망치지 않고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챙겨 입혀 함께 소풍을 가듯 떠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가 창조한 캐릭터인 마치우시 왕은, 일찍이 부모를 잃고 어른인 대신들 사이에서 어린이를 위한 나라를 만들려 고군분투합니다. 어린아이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에 주변 국가들이 전쟁을 일으키지만, 대신들은 어린 왕에게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으려 합니다. 회의도 왕이 없는 자리에서 대신들끼리만 하는 등 어린이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생각에 쉽게 배제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서도 보족한 수는 없었지요.

그러나 이때, 마뜨 왕은 직접 전쟁에 참가하여 적군의 탄약고를 날려버리는 등 활약을 하게 되고, 결국 희망 없어 보이던 전쟁에 승리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고를 너무 많이 소비했고, 그림에도 아이다운 생각으로 길에서 우연히 만난 소녀의 소원대로 천장 끝까지 달는 토끼인형을 선물한다든지 하는 이벤트를 진행해 아이들의 환심을 사게 되어 아이들의 왕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러나 어른들보다는 경험이 부족했던 마뜨 왕은, 국고를 너무 많이 소비해 나라가 휘청이는데도 정작 전쟁을 일으킨 국가들에 전쟁 배상금을 요구하지 않아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차관을 진행하려 어린 마뜨 왕이 직접 전쟁했던 이웃 세 나라를 방문하는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아이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세상과 어른들의 사정 사이의 간극이 묘한 몰입도를 자아냅니다.

아이들도 나름대로의 세계를 갖고 있고, 판단하며, 그림에도 미숙하고 연약해 올바른 교육과 보살핌이 필요한 존재임을 상기시켜주는 폴란드의 아동문학 고전으로 손꼽히는 작품입니다. 아이의 세계가 얼마나 넓어질 수 있는지 보여줌과 동시에 어른이 어떤 눈높이로 접근해야 할지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지나치게 교육적인 느낌 없이 제시하는 작품으로, 미숙하고 부족한 사람에 대한 혐오가 넘치는 시대에 한 스펀의 관대함을 길러줄 수 있는, 아이도 어른도 모두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동화입니다.



한 편의 시 _ 濟堂 추원호 / 건축사사무소 신세대그룹

꽃뚝의 속삭임

붉은 단풍잎 떨어지고
 앙상한 나뭇가지 흔들거리는
 인적도 드문 산골짜기에
 세상 이야기 속삭이는 시골 마을

이른 아침 토담으로 지은 집
 지붕까지 올라온 꽃뚝 끝에서
 모락 모락 연기가 피어오른다

밤새 설렁해진 구들바닥
 찬기가 스며오는 이불속 벗어나
 풀밭에 있는 검정 고무신 신고
 나뭇가지 가득한 부엌에 앉아
 아궁이에 불을 지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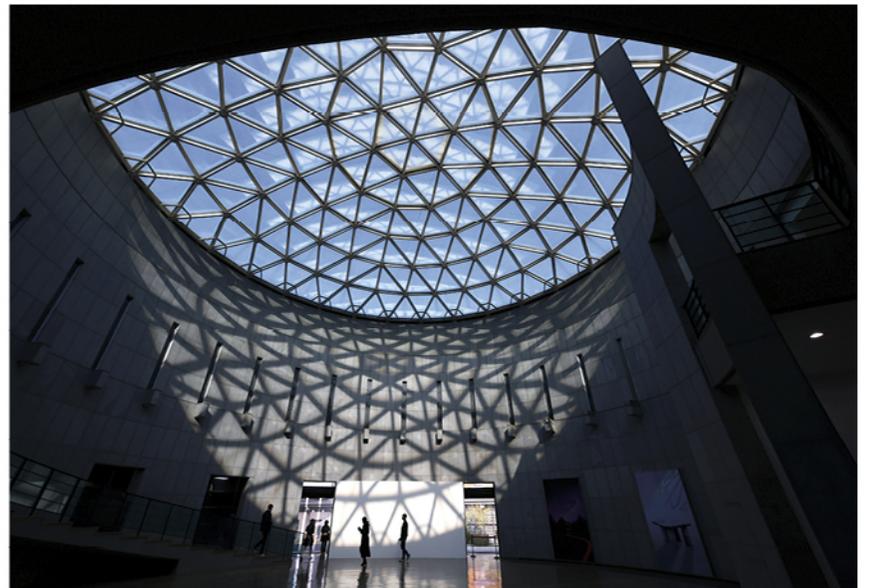
마음이 통해서 일까
 어둡고 낮은 긴 구들을 지나
 뜨거운 열기가 방바닥을 거쳐
 긴 한숨 쉬며 하얀 입김을 내는 꽃뚝

차가운 아침 공기에 마주친 연기
 토담 벽 타고 내려와
 넓은 마당에 납작 엎드려
 금실금실 여행하는 연기의 춤

꽃뚝을 타고 氣를 퍼지 못한 채
 넓은 마당을 기어가는 날이면
 어김없이 비가 내린다.



한 장의 사진 _ 이동희 교수 작 /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돔하우스 경상남도 김해시 / 2022. 10. 28.

신속하게!
 대출도 신탁이 어부바 해드립니다

행복한 내일을 위한 대출 서비스

금융상품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와 함께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 아파트담보 대출
- 부동산담보 대출
- 신용대출

광주건축시신용협동조합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5(4층) Tel. 062-527-8890~1

신탁에 가면, 금융생활이 더 특별해집니다.

